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현상에 관한 연구

최혜정·임영자*

영동전문대학 여성교양과·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

A Study on the Multiculturalism Phenomena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of the End twentieth century

Hey-Jeong Choi · Young-Ja Lim*

Woman culture, Youngdong College Associate Professor

Dept.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Professor*

(2000. 12. 26 투고)

ABSTRACT

Today, every culture has taken on the compromise form by means of the cultural difference, variety, and pluralism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the advance so that it has been developed toward the half-blooded and multilayered the aspect. In accordance with this current of the times, this thesis observed the feminism found in the multiculturalism of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e third world, and technology with the side of the tendency of modern fashion, considered the hybride phenomenon which is pulling down the wall between culture and genre due to the social diversification, and predicted the fashion trend do 21st century sed on it.

Multiculturalism is the movement that began to arise in the academic world of America and the literary world from the close of 1980's in accepting the variety of culture and regarding the culture with the more balanced and wide view and just as it is, it means the attitude of accepting one or more cultures of variety and the position of taking interest in the culture of minority race not the culture of a governing race.

It is the fashion of feminism adapts dualism like unisex, androgynous look, etc of bisexual tendency in the 1980's, it shows new style with crossover of liberal sense because there is not the difference of sex in fashion. The eco-feminism pursues the natural sexuality not being instrumental and dismantling and expressed it in the Gender expression of an integrated human being.

The trend of ethnic fashion in the close of 20th century is that the element of hippie is working so strongly. By adding embroidery of Oriental style, accessories of Indian style, feathers, beads, a hempen hood to the ethnic costumes of Asia and Latin, it shows the figure of ethnic hippie. As the cyber fashion

is the future clothes through technology of computer, it uses a cool glass material bringing up the image of a spacesuit in order to express cyber image through artificial color combination of sheen colors. Though this techno-color fashion has established the fresh stimulation and the innovative aspect with ultramodern materials and image of futurism, it transmits a hope of estranged people and the natural elements. Hybride means a cross and mixture of animal and plant in Korean and is also called fusion. The phenomenon of hybrid predicts to come the period of a cross and variation because something completely new comes into the world by contamination, mixture and compromise through meeting something different each other and it has an advantage of developing something existing to one more stage. It is prospecting that in the society of 21st century, the borderline of traditional gender will be disappeared, variety and individuality will determine the individual behavior, and the masculine value will be substituted by feminine value. In the society giving priority to feminine value, a fashion stuck closely to women is what must reflect lives of woman under the proposition of woman's beauty, being on original function. So, it is considered that a fashion with added convenience and practicality having the function which is easy to put on, comfortable to act, able to express selves so much, and able to show various appearances according to T.P.O will get into the spotlight.

Key Words : multiculturalism, feminism, ethnic, techno-cyber, hybrid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이 시대에는 문화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문화는 보편화되어 있다.

대중문화의 페스티벌과 이벤트들이 일상적으로 개최되고 거리에는 온갖 이미지와 스타일들이 난무하며, 대중들의 육체와 삶의 과정들은 끊임없이 문화적 욕망을 꿈꾼다.¹⁾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듣는 것들이 점차로 문화 형식에 의해 지배를 받고, 스스로 문화적인 내용들을 담아나가는 방식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21세기의 문화환경의 추세인 것이다.

그리하여 문화를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던 여러 가지 개념, 이념 등을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며 다시 읽고 새로 씌워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²⁾고 하였다.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³⁾은 앞으로 인류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야기할 가장 큰 원인은 문화적인 것이고, 이제는 문명의 충돌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문화적 정세

성은 그 문화의 차이, 다양성, 다원주의에 대해 민감하여 그러한 경향에 대해 적극적이기 때문에 절충주의적 양식에 의해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적인 인식에 있다고 하겠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는 "이 세상에 순수한 문화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이 세상에 단일문화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이 곧 다문화주의를 지칭한다. 다문화주의는 무엇보다도 문화적 다양성과 상대성에 근본을 두고 있다.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이질적인 면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다문화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형태의 소수문화에 대한 존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제국주의, 산업주의, 남성주의 등 이제까지 지배적이었던 모든 사회적 원리에 대한 불신과 거부 및 저항을 요청한다. 또한 서구문화의 주변에 위치해 있던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과 재자리 찾기를 통한 동서문화의 공존도 문화적 상대주의에 입각한 다문화주의의 일환이라 하겠다. 또한 첨단 기술문화에 의한 사이

버스페이스의 확장은 지리적 여건에 관계없이 이질적 문화들간의 접촉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용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각기 상이하고 이질적인 문화들이 단순히 타문화에 흡수되거나 자문화로 통합되는 식의 단일화에 국한되지 않고 함께 뒤섞이는 새로운 혼성문화(hybrid culture)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지역화(glocalization)시대에 시기 적절한 것이며, 이와 같은 연유로 21세기에는 다문화주의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세기말의 혼돈과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포스트모더니즘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수용되어 가는지를 알아보고 다문화주의에서 파생된 여러 문화 현상들을 분석하여 패션과의 상관성을 직시함으로써 이러한 문화현상들에 기인하여 표출되는 세기말 패션이 어떤 의미와 스타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패션을 예측하여 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포스트모더니즘 이론 중 가장 눈에 두드러지고 대표가 될 만한 분야는 패션이다. 문화양식으로서의 패션연구는 제도상의 의미로 보면 비조직적이기는 하지만 사회·문화적인 삶의 가장 밀착되고 일반적이며 널리 경험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⁴⁾

윌슨과 헤브리지는⁵⁾ 포스트모던 스타일에 대해서 통일 원칙이나 '어울리기'에 반대하여 종종 아이러니한 효과나 패러디의 효과를 위해 즉흥적으로 서로 양립되지 않거나 이질적인 단편들을 병치시키거나 또는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이용하는 브리콜라지의 양식을 사용하는 기법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다른 공인된 징후들과 유추시켜 포스트모더니즘패션의 개념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스타일은 탈 장르, 탈 국적등 기존의 장식, 치장⁶⁾, 스타일이 문화적 다원성으로 인하여 하이브리드(Hybrid) 라는 한 단계 발전된 형식으로 바뀌어 가게 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적인 요소를 페미니즘, 제3세계, 테크놀로지

등으로 한정하고 위의 세 부분들과의 상호관련 속에서 현대패션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이론적 연구 및 실증적 연구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이론적 연구를 위해 관계 문헌, 일반복식서적, 디자인 관계문헌, 정기 간행물, 기타 국내논문 그리고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하여 문헌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실증적 연구를 위해 국내외 패션잡지들의 화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외패션잡지의 화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패션문화 현상이라는 것은 이미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트렌드(Trend)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관심과 흥미를 다루고 있는 국내외패션잡지를 선정하였고 그 시기는 1999년 S/S, A/W컬렉션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포스트모더니즘

20세기 후반기에 서구사회의 문화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 전시대의 것과 구별되는 문화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인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 산업시대·후기 자본주의 시대·컴퓨터 시대·불확실성의 시대, 지구촌시대 등 여러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우리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포스트모더니즘이 사용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유행어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연구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가들이 그들의 입장을 하나의 일련된 철학이나 이론체계로 세우는 것이 자기모순적이라고 주장하며 일반화·체계화·이론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⁶⁾

찰스 젠크스(C.Jenks)의 설명에 따르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타협을 암시한다고 한다. 즉 그 배경에 깔린 의미는 명백한데, 그것이 무엇을 대신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⁷⁾

이런 의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간단히 정의해 보면, 모더니즘적 철학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철학적 노력들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며

그 외의 측면에서는 새롭게 대두되는 문화예술사조 혹은 문화양식(style)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쓰인다.

그 중심적 동기는 스타일의 다원성이 존재한다는 사고 아래 모더니즘을 통해 수립된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와의 엄격한 구분, 예술의 각 장르간 폐쇄성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어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혼합, 접목시키는 방식이다. 또 다른 특징은 모더니즘적 문화와 사고 방식이 세워놓은 엄격한 지배의 틀을 거부하는데 있다. 후기 산업사회가 가져온 고도의 전문화된 문화 영역간의 소통 불능상태를 타파하고 삶과 문화의 경계를 없애려고 한다.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 흑백논리 같은 이분론법의 해체,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 해소 등이 그것이다.⁸⁾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철저한 합리주의적 사고가 다민족의 공생을 지탱해 주는 미국사회의 현실을 대변해 주기도 하지만 단절과 갈등,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좀더 신선한 소통과 문화적 충격을 줄이고자하는 시대적 요구 현상이기도 하다.⁹⁾

2. 다문화주의의 개관

1980년대 말엽부터 미국학계나 문화계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운동이다. 다문화주의란 글자 그대로 하나 이상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리키며 지배민족문화뿐 아니라 소수민족의 문화에도 관심을 갖자는 입장이다.¹⁰⁾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서로 공존하는 미국사회의 하나의 대안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미국사회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제각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사회를 지칭하여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샐러드 요리(샐러드보울)'이다.¹¹⁾ 샐러드 그릇에 그대로 간직해 다른 채소나 과일과 어울려 한 그릇의 샐러드 요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으로 이것은 제각기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하나의 국가·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다문화주의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는 세계화와 다문화주의를

지향한다고 한다.¹²⁾ 세계의 경제 체제는 하나의 단위로 점진적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데 비하여 정치적 체제는 아직까지도 경쟁과 대립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에서 문화의 세계화 역시 불확정적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계화에 따른 민족적 정체성은 문화적 동질화와 '포스트 모던'의 결과로서 민족정체성을 '침식'되고 있으며 세계화 과정에 대한 저항으로서 민족적, 지역적, 특수주의적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고 새로운 정체성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 사이드는 다문화주의를 제시한다.¹³⁾

그에 따르면 오늘날 모든 문화는 혼혈이며 다층적이라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있고 문화의 세계화와 진전에 따른 문화의 혼용을 현실로서 승인하며 우리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타자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열려진 대안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수가 아닌 복수의 다양한 문화들의 융성이야말로 기존 문화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며 이것은 모더니즘의 이분론적인 흑백의 논리를 타파하고자 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문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하여 준다. 다만 그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문화에 의거하여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화라는 프로그램은 집단마다 제각기 다르며 대체적으로 문화적 범주는 국가별로 나누어 생각하게 된다. 국가간의 주된 문화 차는 가치관에 있다고 하겠다. 권력과 불평등에 대한 가치관에서, 개인-집단간 관계에서, 남녀 각각의 사회적 역할기대에서 생활 속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그리고 주로 미래지향적인지 또는 과거 내지 현재 지향적 인지에서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¹⁴⁾ 이것은 다양한 문화와 양식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모든 경향이 동등한 지위 및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주의가 상징하는 문화는 특정한 집단의 고정된 속성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집단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산물이고 이에 따라 문화적 정체성은 서로 다른 문화간의 대화에서 생성되며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은 서로 다른 문화간

의 대화에서 생성되며 형성 및 재형성의 장에서 끊임없이 변모하는 것이다.¹⁵⁾

이러한 변형과정은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¹⁶⁾ 소수인종집단이 새롭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면 이 사실에 대한 정치적 인정을 요구하게 된다고 한다.¹⁷⁾ 정보화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집단간의 접촉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 집단의 성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 사회의 장래를 어떤 문화가 적절한 문화인지를 결정하는 논쟁은 정치적인 것이며, 이러한 정치적 논의를 거치면서 개별문화의 다양성과 공통성을 동시에 존중하면서 바람직한 변형의 모습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이다라는 인식 하에 나온 것이 PC(Political Correctness)운동이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치적 적합성'¹⁸⁾ '도의적 올바름'¹⁹⁾의 뜻이다. 이 말은 보수주의자들이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두고 부른 표현이지만 현재는 일련의 자유주의적 태도나 입장을 가리키는 일반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이 운동을 통하여 교육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비서구문화와 소수민족들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어 그 동안 소외되어왔던 문화들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게 됨과 동시에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세계화·국제화시대에 독립된 문화란 있을 수 없고 다만 다른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한 문화의 진보적 발전은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다른 문화에 열려 있고 다른 문화에 자극을 받고 그 문화가 갖고 있는 새로운 자양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 가능해야만 진보적 발전이 가능하다.²⁰⁾ 더구나 오늘날 문화영역이 세계화되는 동시에 지역적 수준에서도 다양한 하위문화들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의 본질이 삶을 의미화 하는 실천에 있다면 포스트모더니즘사회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III. 현대패션과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란 글자 그대로 하나 이상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리킨다. 즉 지배민족

의 문화 뿐 아니라 소수민족의 문화, 또한 그 동안 가부장제 밑에서 남성으로부터 억압받아온 여성, 그리고 제1세계나 제2세계에 속한 서구문화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해 온 비서구문화도 그 대상이 된다.²¹⁾

지금껏 문화를 지배해온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지배계층을 흔히「와스프」(WASP : White Anglo-saxon-Protestants)라고 하는데, 인종으로는 백인, 민족으로는 앵글로색슨 그리고 종교로는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한다.²²⁾ 본 장에서는 이런 문화적 지배세력들의 주변부에 위치해온 여성과 패션, 비유럽권·비서구문화인 제3세계와 패션, 기계문명이라는 새롭고 거대한 문명에 대응되는 테크놀로지와 패션, 그리고 위의 패션문화현상들이 혼성되어 나타난 하이브리드패션현상에 관하여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페미니즘(Feminism)과 패션

20세기 포스트모던의 구조하에서 인간은 기존의 지배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시스템을 극복하여 인종, 계급, 성 등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것은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다양성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일 것이고 그것은 여성에 있어 성차로 인한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움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들의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원동력을 주었으며, 여성들의 가치관의 변화는 현대 패션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²³⁾ 페미니즘과 패션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다수 있으므로 본인은 198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나타난 양성적 측면에서의 패션과 1990년대의 에코페미니즘 경향, 21세기의 디지털문명에 기인한 사이버페미니즘 패션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양성화 경향

현재의 페미니즘의 흐름은 듀얼리즘(Dualism)의 대두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별개의 성이면서 통합적 이미지로 표현되었는데 통합주의적 복식은 여

성이 남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감성으로 크로스오버(crossover)시켜 성차별을 두지 않는 의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듀얼리즘의 특징은 유니섹스(unisex)와 앤드로지너스의 두 개념을 포함한 더 큰 개념이다. 이제 더 이상 육체적으로 특징지어진 복식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입어보고 싶어하는 옷을 입음으로써 내면에 숨겨져 있던 모습인 즉 여성의 내면에 있는 남성성, 남성의 내면에 있는 여성성을 인정하여 자신의 옷 안에 여성복·남성복이라는 이항 대립적인 요소를 함께 나타냄으로써 개인의 특징과 개성을 담아내려고 하였다. 나아가 성에 의해 정해진 남녀관계보다는 사회적으로 남녀가 대등하게 서로를 존경하고 도와주는 새로운 남녀관계까지도 제시하도록 한다.²⁴⁾ 듀얼리즘적 복식은 남녀복식의 아이템을 서로 빌려오거나 남녀의 고정된 착장법을 깨뜨리고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헤어스타일, 화장 등을 사용하여 각자의 내면에 자리잡은 모습을 그대로 표출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노동·가사·교육작업 등에 있어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복으로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²⁵⁾ 비판도 공존하고 있다. <그림 1>은 정장을 한 남성과 여성의 신발을 대비 시킴으로서 페티쉬적 취향을 보여주며 남성복과 여성복이라는 고정관념을 기묘하게 표현한 마놀로 블라닉(Manolo Blahnik)의 이미지 작품이다.



<그림 1> Blahnik Manolo, Fasion 2000. 1997

남성의 신체의 기준은 어깨에서 여성의 신체의 기준은 허리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1980년대 이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군복을 응용하여 여성복에 도입되었는데 딱딱하고 넓은 어깨패드, 딱 졸라맨 허리로 인한 역삼각형 실루엣은 여성의 어깨를 강조하기 위하여 패드나 견장을 사용하고, 남성은 남성다움을 표현하는 강한 직선의 스트레이트 실루엣에서 허리를 강조하는 여성적 선을 채용하거나 근대 이래로 허리를 꼭 조여 놓았던 벨트 대신 스트링(String)으로 허리끈을 대신 사용하는 여성적 아이템을 채용하기도 한다. 98년 가을·겨울 컬렉션에서는 군용 담요를 온몸에 감은 듯한 아방가르드한 밀리터리룩이 등장했다. 최근의 밀리터리룩은 여러 개의 포켓이 달린 유틸리티룩과 후드점퍼와 트레이닝복 같은 스포티즘 그리고 패딩과 하이테크 소재의 미래적인룩이 한데 어우러져 나타난다. 1999년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카스텔바작<그림 2>은 독일병정의 모자를 쓴 모델이 고기능 소재의 옷에 케이플릿을 입고 스니커즈와 같은 신발을 착용하여 신체를 보호하는 방어복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나타내어 주고 있다.



<그림 2> Jean-Chares Castelbajac, Collections (Paris), 1999~2000, A/W

결국 20세기말의 밀리터리룩은 듀얼리즘적인 요소보다 자유롭게 그 동안 우리가 밀리터리룩에서 사용해온 아이템들을 차용하여 매치 시키고 유틸리

티와 퓨처리즘을 더한 밀리터리룩의 새로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에코 페미니즘 패션

90년대에는 생태학과 페미니즘을 결부한 에코 페미니즘이 새롭게 전개되었다. 에코 페미니즘(ecofeminism)은 물질문명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물들에 대한 인간의 각성이 최근에 인간-물(物)-환경의 유기적인 조화가 강조되면서 자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생겨난 새로운 인식적 패러다임이다. 에코 페미니즘은 기존의 페미니즘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대립이 아닌 조화 속에서 그 해결점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질을 거부하지 않고 여성적 관점에서의 재평가로서 본질을 바르게 인식하고 인정하며 주체와 객체가 아닌 또한 중심과 주변이 아닌 평등의 개념을 전개하고 있다. 에코 페미니즘은 여성과 자연 그 본질적 속성과 사회적인 맥락에서 동질성이 있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또한 이원론적 체제(남성-여성, 자연-인간)속에서 대립되어 오던 권력분쟁 이념이 아닌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남성과 여성, 자연과 인간을 총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라고 보는 화해와 공존의 이념이다.²⁶⁾

에코 페미니즘적인 복식의 특징은 소재 면에서도 인체와 친밀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천연섬유의 사용이고 자연의 소재를 직접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주의가 천연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연소재의 재 창조적 측면에서도 소재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가공법이나 소재의 재활용 등으로 나타난다. 1999년 가을·겨울 콜렉션에서 이세이 미야케(Issay Miyake)는 자연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린의 움직임 때마다 소리가 나는 페이퍼 소재의 질감으로 크링클 드레스를 선보이면서 미래적인 모드를 나타내었다.

3) 사이버페미니즘

20세기말 가장 영향력 있는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인종·젠더·육체가 네트의 공간에서 코드화 되는 사이버 페미니즘시대가 도래하였다. 정보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상으로 이제 진정 새로운 방식으

로 자연과 문화와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²⁷⁾ 사이버스페이스 속에서의 인간은 유기체적이며, 단일 구조적이고 계급적인 현실공간과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이며 예술의 민주화 뿐 아니라 인종적, 성적, 이데올로기적 분열상을 극복시켜줄 새로운 공간이다.²⁸⁾ 그리하여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사이버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적 실천에 있어서 아주 전망 있는 새로운 흐름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계들은 시도하며 여성들의 새로운 지평을 구상하게 한다.²⁹⁾

분명히 테크놀로지와 인터넷은 성평등에 있어서 현저히 가치 있는 진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착취와 새로이 강화된 성역할이 현재와 미래에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안적 테크놀로지문화의 주역으로 사이보그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페미니즘 이론가인 도나 헤러웨이³⁰⁾ 사이보그를 인공두뇌의 유기체이며,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교배이며 사회적 실재임과 동시에 허구의 산물로 보았다. 또한 사이보그는 인간과 기계, 인간과 동물,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의 일탈이자 경계의 융합으로 이 경계의 혼란에서 오는 즐거움과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것은 테크놀로지시대의 사명이라 했다. 여기서 우리는 사이보그의 가장 현실적인 모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새로운 인간형 태들이다.

게임 톨레이터의 여주인공 라라 크로포드, 비쥬얼 모델(Visual Model) 웨비 투케이(Webbie tookay)³¹⁾, 사이버 가수 디키 등은 가상현실 속의 사이버 인간들로 사이버 공간상의 성적인 의미는 논할 수 없지만 외적으로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진 사이버 인간의 패션을 살펴보고자 한다.

완벽한 몸매의 웨비투케이(Webbie tookay)는 유럽·아시아·아프리카인 외모의 매력을 조화롭게 갖추고 있으며 디키(DIKI)³²⁾는 일본인 사이버 가수로 현재 디키(Digital Kids)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도 활동중이다. 대부분의 사이버 인간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모델링을 통하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블랙 핫팬츠와 스포티한 스판 스트라이프 탱크 톱은 가냘픈 몸매의 빈약함을 건강미와 섹시미로 커버해 준다.³³⁾ 사이다는 사이버

에서 온 아이다.³⁴⁾ 그런데 전자와 후자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깨끗함 · 순수함 · 툭툭 팀 · 시원함' 과 인공 컬러를 일체 배제한 메이크업, 둥근 옥빛 펜던트가 부착된 목걸이와 팔에 긴 넓은 링, 미래적인 느낌의 실버 메탈릭 스니커즈와 레더 하프마트(half Mitt : 손가락 없는 긴 장갑)는 사이버 공간상의 사이보그적인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하다. <그림 3>, <그림 4>



<그림 3> DiKi, Farbe, 1999, 10



<그림 4> Cyda, Farbe, 1999, 10

2. 제3세계와 패션

제 3세계라는 용어는³⁵⁾ 1952년 프랑스의 인구학자 알프레드 소비가 처음 사용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서민층을 일컫는데 쓰여진 제 3신분이라는 말을 후진국을 지칭하는데 활용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용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선진국

옛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 밖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3대륙 나라들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21세기를 앞두고 펼쳐지는 민속풍의 유행경향은 자문화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타문화를 수용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³⁶⁾ 본 장에서는 20세기 마지막 콜렉션에서 보여진 민속풍의 영향을 에스닉(ethnic)패션과 히피(hippie)패션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세기말의 혼란과 혼돈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신적 측면이 강조된 선(Zen)패션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1) 에스닉(ethnic)패션

에스닉패션이란 유럽을 제외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의상과 민족고유의 염색, 직물, 패턴, 자수, 액세서리 등에서 영감을 얻어 나타나는 모티브와 디자인 · 소재 · 색상 등을 복식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³⁷⁾ <그림 5>는 에스닉풍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이다.



<그림 5> Alexander Mequeen, Fashion 2000, 1997

최근에 에스닉 경향은 현란한 색상과 정열적인 몸짓, 빠른 리듬으로 다소 생소하고 이방적인 것으로 느껴졌던 라틴문화가 라틴풍의 패션, 자수장식, 꽃무늬 셔츠, 판초, 두건, 굵은 쥘을 넣어 느슨하게 땅은 인디언풍의 헤어밴드 등으로 나타내진다.³⁸⁾

평화와 사랑을 에스닉적 요소로 섞은 구찌(Gucci)는 아메리칸(American), 인디언(Indian), 아프리카(African)등이 뒤섞인 절충주의적 영향을 보여주었

다. <그림 6>은 찢긴 청바지를 깃털과 비드로 재구성하여 히피적인 에스닉풍을 보여준다.



<그림 6> Gucci, L'office 1000, 1999, No 1.

특히 99년 가을 어깨와 소매를 감싸주는 폰초(Poncho)나 케이프(cape)는 강력한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래 폰초란 남미의 민족의상으로, 모포 등의 천의 중앙에 구멍을 뚫어 목을 내어 입도록 한 덧옷이고, 케이프는 포르투갈어의 가빠(cape)에서 유래된 용어로 소매가 없는 형식으로 어깨나 팔을 덮는 겉옷을 말한다.³⁹⁾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망토(Manteau)는 케이프와 코트를 총칭하는 프랑스어이다. 케이프의 시작은 예수 탄생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처음에는 바람이나 비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곧 장식을 위해 입기 시작하면서 섬세하고 화려한 디테일을 통해 부를 상징하기도 했다.⁴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케이프는 60년대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옆에 슬릿을 넣어 팔을 끼우는 디자인부터 70년대는 화려한 에스닉 프린트의 폰초가 80년대에는 큰 박스형의 판초나 케이프가 코트대용으로 사용되었다. 99년 가을·겨울의 판초나 케이프의 소재와 디자인은 솔처럼 둘러진 한 장의 천 위에 벨트를 매면 근사한 자켓이 되고(Louis Vuitton), 천 위에 주머니를 여러 개 만들면 유틸리티 가운(Ferre)이 되며, 커다란 천을 몸에 두르면 코트 같은 케이프가 되고 몇몇 디자이너들은 방한보다는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어깨를 덮는 작고 짧은 장식용 케이프 즉 케이플릿(capelet)을 선보이기도 했다.⁴¹⁾ 또

한 크리시아(Krisia) <그림 7>은 에서와 같이 일본의 기모노 형태의 블랑켓(Blanket)을 디자인하여 혼합된 에스닉풍을 보여준다. 20세기말 이와 같은 폰초나 케이프가 유행하는 이유는 다음세기에 대한 어두운 전망대신 우리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므로서 새 천년의 두려움을 안락함으로 대처하고 싶은 욕구의 분출이라 볼 수 있다.



<그림 7> Krizia, Vogue(England), 1999.8

2) 히피 패션

히피(Hippie)의 어원을 보면 해피(happy)와 히프트(hipped, 무언가 열중하는), 히프(hip, 앞서가는)등에서 파생된 단어이다.⁴²⁾

99년 재해석된 히피룩은 히피 시크(hippie chic), 히피 패블러스(hippie fabulous), 히피 글램(hippie glam)등의 이름⁴³⁾으로 불려지는데 자연을 테마로 하는 히피룩은 구속받거나 과장된 것보다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스타일을 추구하므로 인간적 감성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공예적인 감각을 요구하는 자수 특히 비드를 이용한 것·핸드 프린트·패치워크, 프린징 그리고 시간에 대한 향수는 험라인이 불규칙한 집시풍의 스커트, 밑단을 풀어낸 빈티지풍의 패션을 유행시켰다.

20세기말 히피 룩이 다시 등장한 이유는 세기말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패션학교 '에스모드 서울' 카트린느 카를로니 교수는 주장한다.⁴⁴⁾

"세기말, 새로운 천년에 대한 기대와 불안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다. 히

피패션은 65년말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당시 미국 젊은이들은 물질문명에 반발해 자연상태로의 회귀, 혹은 정신적인 가치에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랑 평화를 옷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한다.

그러나 99년의 네오 히피는 60년대의 저항문화의 상징이 아닌 시대의 트렌드로 각국의 에스닉을 섞어 고급스러운 히피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특히 비즈(Besds)와 스팅글(spangle)과 세퀸(sequins)은 다양한 크기와 색깔로 평범한 옷에 개성과 고급스러움·화려함을 더해주었다.

3) 선(Zen)패션

1로 시작하는 천년이 마감되고 2로 시작되는 새 천년이 오는 21세기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연 속으로 도피하려는 현상이 팽배한데 이러한 시기에 가장 관심을 끄는 테마가 바로 켄(Zen:선) 즉 동양의 선(禪)사상이다. 선은 현대문명이 토해내는 욕망과 언어의 공해를 정면에서 응시하고 정확할 수 있는 하나의 대한으로 주목 받고 있다.⁴⁵⁾

근래에 서양인들의 선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몇가지로 정리하여 보면⁴⁶⁾ 첫째 서양철학에서 제시했던 이분법적 세계관에 대한 반성과 해답을 선(禪)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산업사회와 물신주의(物神主義)에 의한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 진정한 인간회복을 선(禪)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

셋째 진정한 인간의 자유를 선(禪)을 통하여 체득할 수 있다.

넷째 선(禪)은 인본주의적이며 마음의 문화며 철학이다. 즉 먼저 자신 안에서 불성을 찾게 하고 세계가 곧 불서임을 알게 한다. 따라서 세계주의 사상을 찾을 수 있다.

다섯째 오랜 기독교 전통의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기독교 문화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참나와 근원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복잡함, 화려함, 과장담, 시끄러움 등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순수하고 조용하고 따뜻한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패션계와 문화계 전반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내고 있다.⁴⁷⁾

국제적으로는 '젠'(Zen, 선의 일본말 발음)이라고 불리는 이 스타일은 세계 중심 주의에서 지역적 다원주의로 옮겨옴으로서 정신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패션 전반에 불고 있는 자연주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⁴⁸⁾

또한 선과 차(茶)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차가 선을 유도하는 신경을 가다듬어 주어서 뿐 아니라 그 은은한 빛깔이 잡다한 생각의 가치를 쳐주기 때문에 패션에서 다색(茶色)을 추구한다⁴⁹⁾고 한다. 그래서 '젠스타일'에는 미니멀리즘이 즐기는 흑·백색 같은 무채색 외에도 다크브라운, 카키색, 겨자색, 보라색 같은 차분하면서도 자연과 가까운 색들이 살아있다.⁵⁰⁾

젠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은 느슨한 재단과 미니멀리즘, 그리고 무채색과 파스텔 톤의 사용으로 전체적으로 승려나 구도자를 연상시키는 차림이며 때로는 부드럽게 늘어지는 소재로 드레이프성을 강조하거나 대담한 사선형 실루엣과 특이한 소재를 사용한다.⁵¹⁾ 세계적인 스포츠 붐에 따라 동양을 연상시키는 쿡루·가라데 그리고 태권도 등의 동양무술의 액티브 하면서 정적인 느낌을 트렌드로 반영하여⁵²⁾ 살바도레 페레가모는 <그림 8>에서 도복에서 영감을 얻은 화이트와 블랙컬러, 도복의 느낌을 변형시켜 정적이면서도 액티브한 느낌을 주는 탄력성 있는 부드러운 펠트나 캐시미어로 만든 릴렉스한 실루엣에 드레이프가 흐르는 넓은 팬츠로 고급스럽고도 편안한 분위기의 켄패션을 표현해 주고 있다.



<그림 8> Salvatore Ferragamo Fashion News, 1999, S/S

3. 테크노(Techno) - 사이버(Cyber)와 패션

1) 테크노(Techno) - 사이버(Cyber)의 개념 및 상상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미래의 충격」(Future Shock)에서 미래사회를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그것의 막대한 영향력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로 내다보았다.⁵³⁾ 20세기의 과학의 급속한 발달을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발달과 뉴미디어(New Media), 컴퓨터 네트워크(Computer Network), 멀티미디어(Multi-Media) 등 첨단정보통신 문명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귀결되어지며 그 사회적 이용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일상생활의 의식의 차원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사이버(Cyber)는 인공두뇌 내지 가상의 뜻으로 사용되지만 아직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사이버는 사이버네틱스라는 낯선 단어의 줄임말로써 배의 키를 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⁵⁴⁾ 이런 뜻에서 조종한다는 의미가 파생되었으며 더 뒤에는 통치하다라는 의미로까지 확장되었다. 사이버는 컴퓨터라는 현실의 기술과 결합된다. 그 결과 이제 사이버라는 용어는 컴퓨터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현실의 변화를 함축하게 된다.⁵⁵⁾

컴퓨터의 대중적인 보급은 신문화를 창조하여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를 비롯하여 사이버펑크(Cyberpunk),⁵⁶⁾ 테크노세비(Techno Savvies),⁵⁷⁾ 테크노-사이버 등의 다양한 신조어를 등장시켰다. 결국 기술·기계는 포함하는 테크노와 인공두뇌·컴퓨터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최첨단의 과학문명을 나타내는 테크노-사이버문화는 인간과 테크놀로지를 이어주는 새로운 문화형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테크노-사이버 문화를 각각 살펴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테크노-사이버 패션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0세기의 디지털 혁명 이후 기술의 혜택은 테크노 음악뿐만이 아니라 청년문화의 산실로 클럽, 영화, 광고, 패션, 건축, 미술 등 여러 분야에 자유와 가능성을 제공했고 이는 기존의 질서에서는 보기 힘든 '실험정신'과 '새로움'이라는 아이콘으로 대중을 흡인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의 테크노 붐은 테크

노적인 분위기나 스타일에서 오는 것들이 많다. 테크노 음악을 배경에 깔고 나오는 영화, 테크노 풍의 패션과 메이크업이 유행중이고, 이외에도 테크놀로지와 예술이 만나는 곳에는 어디든지 공통 코드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문화분야에 테크노적인 요소가 파급되는 것은 테크노가 가진 진보적이고 전복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새 밀레니엄은 첨단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의해 지배될 것이고 온갖 전자 통신 수단은 우리의 일상을 디지털 사이버 문화화 할 것이다.⁵⁸⁾ 라고 피에르 레비 교수는 '사이버 문화란 무엇인가'를 다양한 층위에서 접근 분석하고 있다. '매체는 곧 메시지이다'라고 언급한 마셜 맥루한은 커뮤니케이션현상에서 중요한 것은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언어·화페·활자·사진·영화·텔레비전·컴퓨터와 같은 매체이다.⁵⁹⁾ 라고 하며 이러한 매체에 의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PC통신과 인터넷 등의 사이버 공간 역시 현실의 소통과 교환체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통공간을 창출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비물리적 공간이 물리적 공간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만들었다.⁶⁰⁾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의 세계는 매우 감각적이고 감성적이어서⁶¹⁾ 우리들이 현실의 관계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수시로 넘나들어야 하기에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부담으로도 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2) 테크노 - 사이버 패션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정보사회의 도래는 우리 문화를 끝없이 변화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테크노를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음악, 기계, 자연이 믹싱 되어 모든 장르에서 자유로움을 표출하는 것으로 테크노는 자연적인 이미지의 순수함과 기계적인 이미지에서 도출 할 수 있는 '빛'의 느낌을 첨단소재로서 표현하고 있다. 1999년의 테크노 패션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새로운 기능적인 소재의 테크노 패션과 미래의 가상현실에 대한 현대인의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사이버디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테크노스타일 디자인은 특히 베탈, 광택소재, 기계적 메시지를 사용함으로써 미래적 이미지를 상징한다.

또한 진보된 과학기술을 기존의 정적인 직물에 결합시킨 첨단 신 소재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다양한 신 소재의 의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⁶²⁾

테크노패션이란 원래 테크노음악을 들으면서 테크노댄스를 추기 위한 패션 아이템에서 시작되어 대개 간편하게 리듬을 즐길 수 있는 티셔츠에 트레이닝 팬츠나 블루진이 대부분이지만 한국풍의 테크노음악을 부르는 가수들은 다소 과장된 듯한 분위기의 사이버틱한 실버패션에 미래적인 샤이니 메이크업의 경향을 보여 준다.

미래를 상징하는 실버 칼라는 조명아래에서도 차가운 빛을 반사하므로 패션과 메이크업에는 필수적이며 섹시한 메탈 드레스·실버퀼러의 슬리브니스 튜에 짧은 미니스커트와 힙본 팬츠등 대부분 어깨와 허리를 과감하게 들어 내에 섹시함과 현란함을 주기도 하고 오리엔탈적인 분위기에 테크노가 가미된 독특한 패션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이들의 모습에서 가상공간상의 사이버 걸들의 이미지와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테크놀로지·미래·사이버라는 요소들이 혼합하여 표현되고 있는 인간의 상상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테크노 패션의 일부인 피어싱(Piercing)과 네일 아트도 급속도로 퍼졌다. 금속적이고 컬러풀한 이미지 때문에 테크노 패션의 일부로 나타난 피어싱의 경우 귀 외에도 혀나 눈썹, 배꼽까지도 뚫는다. 또한 1999년의 유행 아이템중의 하나인 실버 스타드(징)와 스파이크, 아일렛은 옷과 벨트, 백, 부츠와 같은 패션 소품에 박으므로서 하드한 느낌을 주는데 이것 역시 테크노의 영향이라 하겠다.

Alexander Mcqueen, Hussein Chalayan, Helmut Lang등 미래지향적인 디자이너들은 21세기에 대한 흥분과 기대, 불안감을 표현하기 위해 우주비행복을 연상시키는 차가운 광택의 소재를 사용하고 미래의인간, 혹은 인조 인간등이 착용할만한 사이버적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⁶³⁾

1990년대 이후 제시된 테크노-사이버 패션에는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예술이 젊은층 사이에서 크게 성행함으로써 전통적인 의상습관을 탈피한 기발한 감각과 전위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래주의적 경향의 복식은 과학적 이미지의

기하학적 형태와 움직이는 예술 의상으로 본격적으로 창작되어 혁신적 창조 정신을 보여준 것으로 현대복식이 나아갈 다양한 미학적 경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첨단과학 분야에서 비롯되어진 테크노-사이버의 영향은 첨단 소재와 미래지향적 이미지로 신선한 자극과 혁신적 양상을 구축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소외된 인간의 생활과 자연적인 요소와의 융합을 추구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암시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감각이 풍부한 지방시(Givenchy)는 투명한 보드판의 회로도에 전구를 연결하여 어둠 속에서도 인간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옷을 선보였다.<그림 9> 에트로(Etrot)는 <그림 10>에서 오간자 소재의 펄(pearl)퀼러를 깨끗하고 정확한



<그림 9> Givenchy, Collections, 1999~2000, A/W



<그림 10> Etro, L'officiel 1000, 1999, No. 1

라인의 탑과 스커트에 기능적인 바디 백을 착용하여 퓨처리스틱한 영혼을 표현하기도 했다.

4. 하이브리드(hybrid) 패션

최근 사회가 다변화되고 컴퓨터 문화가 발달하면서 문화장르간의 벽 허물기가 가속화되고 이러한 융합현상이 전 문화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문화계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든지 이 같은 현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된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⁶⁴⁾ 우리는 이것을 문화 하이브리드(hybrid)현상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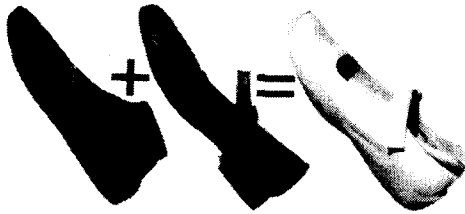
하이브리드는 우리말로 다른 종속과 사이에 교배된 것⁶⁵⁾을 말하며 동·식물의 잡종, 혼성물 등으로 옮겨지고⁶⁶⁾ 주로 '잡종옥수수'처럼 사람들이 식물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종(種)을 결합해 생기는 결과물을 일컫는다.⁶⁷⁾ 또한 이런 현상을 퓨전(Fusion)⁶⁸⁾이라고도 칭하는데 퓨전이란 융해·융용의 뜻을 갖고 있고 정당, 당파연합, 연립, 합병, 제휴 등의 의로도 쓰인다.⁶⁹⁾ 그리하여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아이템들, 이국적이라는 요소의 다양함들, 절대로 어울리진 않다고 평가받아오던 모든 기존의 상식들, 이러한 것들이 믹스되어 새로움이라는 매혹을 지니면서 다가선다.⁷⁰⁾ 하이브리드란 용어가 생물학적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 가시화된 것은 컴퓨터 분야이다. 1960년대 성공적인 연산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아날로그 테크닉과 디지털 테크닉을 함께 사용한 컴퓨터종류를 하이브리드 컴퓨터로 명명한 데서 비롯된다. 현재도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리얼 타임'분석과 자동제어 우주선 유도 시스템 등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⁷¹⁾

혼합, 혼재, 집묵, 교배 등과 곧잘 함께 쓰이는 이 무드는 '탈 장르', '탈 국적' 등 기존에 있던 것을 한 단계 발전시켜 전혀 새로운 것으로 탄생되며 이것으로 인해 잡종과 변종의 시대가 도래함을 예고하여 준다.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현상이 세기말에 새로운 문화코드로 떠오른 이유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호가 과편화·세분화하면서 그들은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일한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면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겠다.

패션에 나타난 최초의 하이브리드현상은 일반 외출복에 스포츠 요소를 가미한 스포츠 룩(Sports Look)으로 20세기의 마지막 패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21세기를 앞두고 미래과학을 상징하는 스포츠웨어⁷²⁾는 퓨처리즘패션의 중요한 모티브로 활용되며 스포츠 룩이 원래 지니고 있는 활동성과 기능성이 새로운 시대의 패션을 이끌어 가는 필수적인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⁷³⁾ 이러한 스포츠 룩 타입의 편안함은 유행이 아닌 기본요소로 자리잡았다. 이것은 여성의 미를 정숙함보다는 실용주의에 뿌리를 둔 활동성에서 찾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⁷⁴⁾ 그렇다면 왜 스포츠웨어가 미래패션의 대안인가라는 것의 해답은 첫째로 새롭다는 점 즉 식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스포츠를 통해 문명의 전체 가치가 반영된다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⁷⁵⁾ 즉 문명의 전체가치란 문명의 발전된 정도를 의미한다. 스포츠웨어와 정장의 하이브리드는 가벼운 느낌이 강해졌으며 날씬하고 편안한 스커트가 주종을 이루고 재킷은 물론 블라우스에도 모자를 달거나 다른 소재의 커다란 주머니를 장식해 스포츠웨어의 감각을 살린 옷들이 주목받는다.⁷⁶⁾ 또한 지퍼와 후드, 스트링 그리고 우주적인 느낌을 주는 퍼널 넥(Funnel neck)은 스포츠 룩을 표현하는 주요 디테일로 사용되고 있다.⁷⁷⁾ <그림 11>은 인체 공학적으로 구성된 해양 스포츠의 잠수부 신발에 복고적인 메리제인을 결합시켜 스포티브한 메리제인으로 프라다(Prada)에서 재탄생시켜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그림 12>은 블루의 나일론 패딩 점퍼를 뱃색처럼 어깨에 맬 수 있게 기능적으로 디자인하고 이너웨어로 모자가 달린 스킨스쿠복 같은 스웨터를 착용케하브로서 가볍지만 따뜻한 하이테크소재의 기능적인 옷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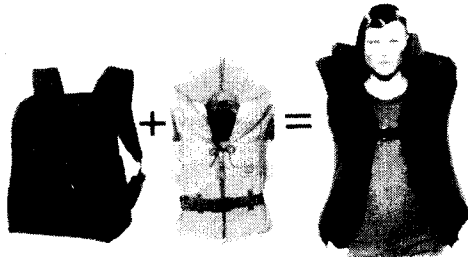
이렇듯 미래 지향적인 스타일로 변신한 스포츠 룩은 밀레니엄을 앞둔 세대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시대적인 요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일상 속의 스포츠, 새로운 젠더리스(Genderless)스타일, 이 지적인 것과 활동적인 것의 조화 등 새로운 세대에게 가장 모던하고 쿨(세련되고 멋있다는 의미)한 패션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림 11> 스포티브메리제인, Elle, 1999,11



<그림 12> DKNY, Elle, 1999, 11



<그림 13> 백팩조끼, Elle, 1999,11

90년대는 여성들에게 패션과 미에 대한 다양한 기준이 인정받게 된 시기이다. 들체와 가바나⁷⁸⁾는 90년대를 풍미한 트렌드로 자유로운 사고를 들었고 이러한 자유로운 사고가 인습의 벽을 허물면서 새로운 방식의 패션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지금 섞어 입는 개념의 옷 착용방식 즉 절충주의 패션이 다양하게 전개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착장방법의 하이브리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캐주얼한 것과 포멀한 것,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 부드러운 것과 딱딱한 것,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 두꺼운 것과 얇은 것,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비싼 것과 싼 것을 모두 한데 섞어 자신만의 새로운 옷입기를 추구한다.⁷⁹⁾ 또한 일반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는 그 동안 배제되었던 비주류의 다양한 하위문화 스타일과 주류의 일반 스타일이 혼합되면서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물개성적인 스타일을 거부하고 민주적이고 자유분방한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⁸⁰⁾

이러한 절충적 패션은 세계화와 다문화주의를 통하여 이국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며 교통·통신의 발달 및 경제체제의 일원화로 인하여 어느 곳에서나 무엇이든지 살 수 있게 됨으로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다. 여기에는 문화의 혼합 '컬처 믹스'라는 독특한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⁸¹⁾ 다양한 접촉과 자극에 의해 우리는 갈수록 세련된 아름다움을 교묘한 방식으로 추구하게 되는데, 아이템·컬러·문화·패턴이 거침없이 뒤섞이는 스타일이 현대패션에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더해준다. 이러한 절충주의패션은 미니멀리스트 단계에서 21세기의 패션경향을 예측하여주는 진화된 모습으로 새천년을 희망적으로 해석하며 우리에게 트랜디하다는 느낌에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여 준다.

V. 다문화주의의 미래와 패션

1. 다문화주의의 미래

현 시대를 3F(Feeling, fiction, female)의 시대라고 한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여성역할에 의해 역사의 흐름이 변화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했던 경계는 무너져가고 있다. 미래를 떠맡을 신세대는 중성적 이미지, 곧 유니섹스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남성과 여성의 성적 경계보다 다양성과 개성이 개인이 행위를 결정한다는 새로운 인간형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세기에는 남성/여성의 구분보다 인간/비인간, 현실/사이버, 다양성/획일화의 이분화가 사회체제 유지의 암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적 가치가 새로운 대안적 가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남성/여성, 이성/감성, 진보/보수 등 획일·고정·범주적 사고가 지배했던 근대는 이제 과거의 사회로 멀어져가고 유연성·다양성이 이 시대를 열어가는 문화적 화두로 등장했다. 이성, 진보, 혁명, 주체, 권력, 지배, 소유 등으로 표현됐던 남성적 가치는 나눔, 보살핌, 의사소통, 배려, 신뢰 등 여성적 가치로 대체될 것이라는 것이다.⁸²⁾

여성적 가치가 우선시 되는 사회에서 여성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패션은 그것이 추구하는 가장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여성스러움이라고 본다면 21세기에는 여성스러움을 부드러움으로 표현하여주며 다양화된 사회를 살아나가기 위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패션이 각광받게 될 것이다.

2. 21세기 패션의 경향

20세기의 패션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90년대 세기말 패션은 기존의 규범에 대한 해체와 다원적 사고에 의해 절충주의적 경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어떠한 패션이 우리에게 착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된다.

2000년 봄-여름 컬렉션에서는 프린트·패턴·모든 색깔들이 패션쇼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으며「패션은 어떠해야 한다.」는 사고의 틀이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⁸³⁾

뉴욕의 디자이너 예리(Yoehlee)는 패션은 반드시 여성들의 삶을 반영해야하며 치장에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유의해야하며 유선형 의상이 부각될 것이라고 말한다.⁸⁴⁾ 밀라노에 로렉스 스틸은 특별한 옷을 만드는 것은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입기 쉬운 옷, 입고 활동하기 편한 옷을 만들어야 한다⁸⁵⁾고 하며 존 바틀렛 역시 자신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표현해 주는 옷, 언제고 입을 수 있는 옷을 원할 것⁸⁶⁾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의 패션 디자인은 패션의 기본 명제인 여성을 아름답게 보이는 역할이 외에 기능성적인 측면의 것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패션에 있어서 기능성에 많은 비

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신소재의 출현이다. 이런 신소재의 개발은 기존 소재를 가지고 다루어 왔던 디자이너들의 상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즉 금속의 성질과 유사한 인공 세라믹과 합성수지, 돌의 견고성과 유리의 투명성을 지닌 새로운 플라스틱류, 광섬유 등과 같은 신소재의 출현은 사물의 형식성에 대한 종래의 관점을 수정하게 하고 있다.⁸⁷⁾ 이 모두는 새로운 생산방법과 기술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기능과 형태 표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1세기의 소재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듀폰 라이크라의 2000~2001년 가을·겨울의 트렌드 소재의 제안을 보면⁸⁸⁾ 21세기의 소비자는 과거의 뿌리에서 아직 완전히 현대화되지 못했지만 전자제품 특히 컴퓨터 통신, 개인 휴대폰등으로 무장된 매우 일렉트릭한 집단으로 이 특성이 패션에 영향을 미쳐 현대패션은 더욱 하이테크에 의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하여 과학과 패션이 만난 하이테크 기능이 부각된 스포츠웨어 품의 느낌과 고기능소재가 제공하는 은신처, 유연하며 공기투과성이 있는 보호복의 개념으로의 패션. 그리고 과학과 디자인의 융화로 만들어진 무봉제의류(Luminous)등을 제시하였다.⁸⁹⁾

반면 일본의 가네보 패션 연구소의 2000/2001 가을·겨울 소재정보는 21세기가 되면 하이테크 감각이라는 키워드는 없어지고 수공예 감각이 클로즈업된다고 언급하고 있다.⁹⁰⁾

또한 향후 2005년까지의 산업전반에 걸쳐 통용될 디자인의 트렌드 예측이 나왔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경련과 대기업이 공동 참여한 '디자인 트렌트 2005'란 프로젝트⁹¹⁾로 전경련에 따르면 인간 순수본성이 디자인의 조형에도 영향을 미쳐, 2005년 통용될 디자인의 트렌드는 인간의 '몸'을 기초로 곡선과 직선의 조화를 꾀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료 부문에서는 산업 제품의 걸면이 플라스틱 처럼 대부분 딱딱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피부'를 모방한 유연하고 부드러운 신소재가 유행할 것으로 봤다.

색상 부문에서는 인간의 정신 세계를 반영하는 하늘과 물의 색깔인 '청색'과 인간의 몸을 상징하는 땅의 색깔인 '황색'이 밀레니엄 색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21세기에는 우리가 그 동안 가상적으로 생각해 왔던 패션들 즉, 데이웨어와 이브닝웨어도 결합할 수 있는 옷, 단순하면서도 여성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옷 그리고 봉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접었다 펴서 채형에 관계없이 입을 수 있는 옷 등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으며 여기에는 의복의 편안함과 실용성이 갖추어지고 절제되고 깔끔한 실루엣의 기능적 경향의 유틸리티룩이 각광받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VI. 결 론

오늘날 모든 문화는 문명의 세계화와 진전에 따라 그 문화의 차이, 다양성, 다원주의에 의해 절충주의적 형식을 띄고 있어 혼혈적이며 다층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의거하여 20세기말 다문화주의에 나타난 페미니즘과 제3세계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현대패션의 흐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사회의 다변화에 기인한 문화·장르간의 벽 허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현상을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21세기 패션경향을 예측하여 보았다.

첫째, 다문화주의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를 보다 균형 있고 폭넓게 보자는 것으로 1980년대 말엽부터 미국학계나 문화계에 일어나기 시작한 운동이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리키며 지배민족문화뿐 아니라 소수민족의 문화에도 관심을 갖자는 입장이다.

둘째, 페미니즘 패션으로 80년대 양성화의 경향은 유니섹스·안드로지너스룩등 듀얼리즘을 표방하며 패션에 있어 성차를 두지 않는 자유로운 감성의 크로스 오버의 새로운 스타일로 나타나며 20세기말의 밀리터리 룩은 그 동안 밀리터리 룩에서 사용해온 아이템을 차용하여 매치 시키고 유틸리티와 퓨처리즘을 더한 모습이며, 중성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일본의 디자이너들은 기존의 전형적인 패턴을 완전히 파괴한 형태를 패션에 도입하여 동서양 패션의 만남을 통하여 기존의 의복의 경계를 이동하는 기능적인 패션을 보여주었다.

90년대 에코페미니즘은 도구화되거나 해체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여성성의 추구, 통합적 인간의 성적 표현으로 나타내진다. 자연적 모티브를 사용하여, 꽃, 나뭇잎, 나비등 성의 표현은 자연스럽고 심플한 라인으로 나타나며 여성의 신체를 드러내 보이지만 결코 탐욕적이거나 에로틱하지 않도록 하는 완벽한 미를 보여준다. 소재 면에서도 인체와 친밀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천연섬유를 사용하고 자연주의가 천연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연소재의 재창조 측면에서의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나 가공법이 등장하였는데 특히 종이질감의 소재를 사용한 디자인들이 눈에 띄었다. 사이버페미니즘은 컴퓨터상의 가상 공간에서 인종, 젠더, 육체가 네트에 의해 코드화 되어 '정신'만이 궁극적으로 총체적 우위를 드러나게 되는데 사이버 페이스상의 사이버걸의 이미지는 남성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 시대 여성들의 매력적인 이미지들로 조합시켜 놓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가녀린 몸매에 자신의 육체를 최대한 매력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스포티한 옷차림과 인공칼라를 배제한 순수한 메이크업 등으로 건강함과 세련된 모습으로 보여주며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와해시키고 있다.

셋째, 21세기를 앞두고 펼쳐지는 민속풍의 유행 경향은 세계중심주의적 사고에서 지역적 다원주의로 이전됨에 따라 타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20세기말의 에스닉패션 경향은 히피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나 라틴의 각 나라의 민속복 형태에 동양풍의 자수, 인디언 풍의 액세서리, 깃털, 비즈, 두건을 더함으로서 에스닉 히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99년 가을·겨울 컬렉션의 폰초나 케이프 혹은 블랭킷의 유행은 다음세기에 대한 두려움을 부드럽게 몸을 감싸므로써 안락함을 누리하고자 하는 인간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새로운 천년에 대한 기대와 불안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여 20세기말 네오 히피와 선에 집착한 패션이 주목받게 되었다. 네오 히피는 60년대의 저항 문화의 상징이 아닌 시대의 트렌드로 각국의 에스닉을 섞어 고급스러운 히피스타일을 선보였는데 비즈와 스팅글·세퀀 등의 다양한 크기와 색깔로, 프린징·패치워크·자수 등을 이용하여 장

식하였고 테크놀로지사회에 대한 반동으로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유로운 포크룩이 각광받게 되었다. 젠스타일은 패션계 전반에 불고있는 자연주의 흐름과 맞물려 색을 배제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현대 패션의 흐름을 주도해 가고 있다. 젠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은 느슨한 재단과 대담한 생략, 그리고 무채색과 자연 친화적색의 사용으로 전체적으로 승려나 구도자를 연상시킨다. 다가오는 2000년대를 맞아 세기말적인 복잡한 상황 아래서 자아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며 좁게는 개인의 몸과 정신의 균형을, 넓게는 인류의 문명을 보다 평화롭게 이끌어 줄 것이며 21세기에는 이러한 동양의 정서가 뉴 패러다임으로 제시될 것이다.

넷째, 테크노는 빛과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전자매체에 만들어진 환상적인 조형효과는 공상 과학 영화 등에서 미래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특히 조명 아래에서도 차가운 빛을 반사하는 실버칼라는 테크노-사이버패션과 메이크업에는 필수적이다. 트렌트적 측면에서의 테크노 패션은 색시한 메탈드레스, 실버칼라의 슬리브니스톱에 짧은 미니 스커트, 합본 팬츠등 대부분 어깨와 허리를 과감하게 들어내어 색시함과 현란함을 주기도 하며 오리엔탈적 분위기가 가미된 독특한 패션으로 유행하고 있다. 사이버패션은 컴퓨터의 테크놀로지를 통한 미래형 의복으로 21세기에 대한 흥분과 기대 불안감을 표현하기 위해 우주비행복을 연상시키는 차가운 광택의 소재를 사용하고 광택 있는 원색의 인공적인 칼라조합을 통하여 사이버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러한 테크노-사이버패션은 첨단소재와 퓨처리즘적인 이미지로 신선한 자극과 혁신적 양상을 구축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소외된 인간의 생활과 자연적인 요소와의 융합을 추구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암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다섯째, 하이브리드는 동·식물의 잡종, 혼성물 등을 뜻하며 퓨전이라고도 칭한다. 하이브리드 현상은 서로 다른 것끼리의 만남을 통해 혼성·혼합·절충되어 전혀 새로운 것으로 탄생되며 기존에 있던 것보다 한 단계 발전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잡종과 변종의 시대가 도래함을 예고하여 준다. 패션에 나타난 최초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정장에

스포츠 요소를 가미한 스포츠 룩으로 20세기의 마지막의 패션 트렌드로 스포츠 웨어가 지나고 있는 활동성과 기능성이 새로운 시대의 패션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웨어는 편안함이 기본요소로 지퍼와 후드, 퍼플 넥, 스트링 등 첨단소재와 고기능적 디테일을 활용하여 여성의 미를 정숙함보다 실용주의에 뿌리를 둔 활동성에서 찾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미래 지향적인 스타일로 변신한 스포츠 룩은 밀레니엄을 앞둔 세대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시대적인 요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아이템, 컬러, 문화, 패턴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다양한 접촉과 자극에 의해 거침없이 뒤섞이는 현대의 패션 즉 섞어 입는 개념의 옷 착용 방식의 절충주의적 패션은 옷을 입어 내는 태도로 그 전시대보다 개인의 취향이나 스타일을 더욱 존중하여주는 인간존중의 패션경향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21세기의 사회는 전통적 성적 경계가 없어지고 다양성과 개성이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게 되며 남성적 가치에서 여성적 가치로 대체될 것이고 여성적 가치가 우선시 되는 사회에서 여성과 가장 밀착된 패션은 원초적 기능인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기본적 명제 아래 반드시 여성들의 삶을 반영하는 것으로 입기 쉽고, 활동하기 편하며, 자신을 많이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T.P.O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성을 갖춘 편안함과 실용성이 가미된 패션이 각광받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소재 면에서도 유연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사회 현실에 걸맞는 부드러운 질감으로 그려면서도 일렉트릭한 집단에 의해 하이테크적인 기능이 부과된 고기능 소재에 의존할 것이라 여겨진다.

새 천년에는 다양화된 사회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욕구가 높아지게 될 것이며 순수 본성으로 돌아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찾고자 할 때 인간의 가장 근본적 성찰로서의 휴머니즘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인류를 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문화적·인종적 다원주의에 기초한 세계주의적 민족도 탄생될 것이며 그들이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가는 데에는 다문화적 인식이 필요하다. 더구나 차후에는 문화적 다원성에 근거한 간문화(intercultural)와

복문화(pluricultural)에 관한 학제간의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이동연, 「문화연구의 새로운 토픽들」, 문화과학사, 1999, 서언
- 2) 정정호·이소영 편역, 「여행하는 이론」, 동인, 1999, 서문.
- 3) 사무엘 헌팅턴, 이회재 역, 「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8.
- 4) R. Steven corner, 「Postmodernism and Popular Culture」, 정정호·이소영 편역, 여행하는 이론, 동인, 1999, P138.
- 5) 상계서, P139.
- 6) 경노훈·윤민희, 「디자인 문화와 생활」, 예경.
- 7) C.Jenks,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London : Academy Editions), 1977.
- 8) 원용진, 「대중 문화의 패러다임」, 한나래, 1998, p248.
- 9) 윤여환, 포스트모더니즘, 서천신문, 1995. 9. 20.
- 10) 김옥동, 「현대사회와 모더니즘」, 남남출판사, 1997.
- 11) 김동욱 전계서, p19, 34
- 12) 김동욱, 「현대사회와 모더니즘」, 남남출판사, 1997.
- 13) 김호기, 「문화의 세계화와 민족문화의 미래」, 1998, 11, 26.
- 14) Geert Hofstede 저, 차재호·나은영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1995, P334.
- 15) 정상준,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외국문학43호, 1995, 여름, p92.
- 16) 상계서.
- 17) Geert Hofstede 저, 차재호·나은영역, 전계서, P337.
- 18) 김동욱, 전계서.
- 19) 서울대 사회정의 연구 실천모임, 전계서, pp315~338.
- 20) 박이문, 문화개방과 주체성, 동아일보.
- 21) 김동욱, 「세계의 신사고 : 서구문화의 중심 축을 흔든 다문화주의」, WIN, 제2권12호 1999, 12.
- 22) 상계서.
- 23) 손미희·임영자, 페미니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 제35호 1997, 5, p275.
- 24) 송경자,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듀얼리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1999, p26.
- 25) 마르크-알랭 테캉지움, 강주현 역, 「허영과 문화의 유행심리」, 사피에티아, 1999, p60.
- 26) 동아일보 1997, 6. 19.
- 27) 안인기, "테크놀로지의 수용과 현대미술의 의미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1996, p58.
- 28) 상계서, p63.
- 29) Faith Wilding and CAE, "Notes on the Political condition Cyberfeminism".
- 30) 안인기, 전계서, p60.
- 31) <http://www.illusion2k.com>
- 32) www.diki.co.kr
- 33) FARBE, 99.10.
- 34) www.cyda.co.kr
- 35) 이주현, 「미술로 보는 20세기」, 학교재, 1999, p191.
- 36) 김호정, 전계서 p1.
- 37) 정상호, 「현대패션모드」, 교문사, 1996, p125
- 38) '새천년 라틴물결', 스포츠 서울, 1999, 10. 12.
- 39) FARBE, 1999, 10.
- 40) Vogue, 1999, 8.
- 41) FARBE, 1999, 10.
- 42) ELLE., 1999, 10.
- 43) 장재영, '봄의 전령 Hippie Look', FASHION PLANET, 99. 4. 7. (zzang@fashion viz.co.kr)
- 44) '지구촌히피패션바람', 동아일보, 1999. 9. 14.
- 45) 이지, 「선(禪)이야기」, 운주사, 1996, P24.
- 46) 한기두의 3인공저, 「선과 인격수련」,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6, p11~12.
- 47) Vogue, 'zen project', 1999, 9. p98.
- 48) 조선일보, '禪', 1999, 8. 18.
- 49) 조선일보, '禪패션', 1999, 8. 30.
- 50) 조선일보, 전계서.
- 51) 이유향, "현대 의상에 나타난 미래 이미지", 복식문화연구 제6권 4호, 1998, p199.
- 52) 섬유저널, '올 겨울 스포츠웨어', 1999, 6, 29.
- 53) 서성복, 「현대미술의 쟁점」, 재원, 1997, p33에서 재인용.
- 54) 홍성태 엮음, 「사이보그·사이버컬처」, 문화과학사, 1997, 서문.
- 55) 상계서.
- 56) 70년대 기존체제에 대한 반항을 부르짖던 펑크 문화와 일반화되어 가는 컴퓨터기술이 결합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문화를 가리킨다.
- 57) 테크노서비스(Techno Savvies)는 기술(Technology)을 잘 이해하는(Savvy)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미국의 광고컨설팅 회사인 오길비&매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컴퓨터 및 전자 분야에 앞서있는 소비자"목록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 58) Pierre Levy, Cyberculture, Odile Jacob, 1997.
- 59)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McGrawhill, 1964.
- 60) 이주현, 전계서, p323.
- 61) 상계서 p32.
- 62) 이유경, "현대 의상디자인에 나타난 미래 이미지", 복식문화연구6(4), 1998, pp188-202.
- 63) FARBE, 전계서.
- 64) 오광수, '퓨전현상, 시대문화를 뒤흔든다', 1999, 7, 15, p52.

- 65) Encarta, on-line Encyclopedia. www.encarta.com
- 66)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범문사.
- 67) 김상도의2人, '현란한 하이브리드 현상', 중앙일보, 1998.
- 68) 오광수, 전게서, p52.
- 69) ELLE, 1998년 5월 p112.
- 70) 코오롱 패션연구소, '2000 S/S KFS Forecast', Influence.
- 71) Lexicon Universal Encyclopedia (New York : Lexicon Publications Inc), pp.328-329.
- 72) '99패션 스포츠 룩', 경향신문, 1999. 1. 13.
- 73) 'Why Sport' FARBE 1999/4 P44
- 74) '신 세기 앞두고 자연주의 물결', 한국경제, 1999. 3. 36
- 75) 마르크-알랭 데캥 지음, 강주현 역, 전게서, p152.
- 76) 경향신문, 전게서.
- 77) Why Sport, 전게서.
- 78) '디자이너들이 분석한 90년대의 패션 트렌드', CNN, 1998. 12. 23.
- www.fashiontalk.com, 99. 1. 8
- 79) 'Be yourself!', HAPES BAZZAR, 1999. 10/ p32.
- 80) 양희영,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질층주의적 경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p21.
- 81) 'Mix Party', FARBE, 1999. 10.
- 82) 조혜정, '여성의 시대는 열릴까', 중앙일보, 1999. 1. 11.
- 83) 조선일보, 1999. 10. 13.
- 84) '디자이너들이 예측하는 패션의 미래', WWD, 1999. 1. 11
- 85) 상계서.
- 86) 상계서.
- 87) Paola Antone Mutant, Materials in Contemporary Design, Museum of Modern Art, 1995.
- 88) 듀폰 '2000년 F/W 트렌드 하이테크 소프트 소재 제안', 섬유저널, 1999. 10. 12.
- 89) 상계서.
- 90) 일본섬유신문, 1999. 9. 8.
- 91) 조선일보, 1999. 11. 26.